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관한 역사적 개관 I



송상현
본연맹 이사
unicef 한국위원회 회장

유엔의 3대 설립 목표

세계대전 후 1945년 창설된 유엔은 처음부터 국제사회의 3대 핵심과제를 국제평화와 안보, 인권 그리고 개발로 설정하였다.

첫째 국제평화와 안보에 관해서는 주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과 집단안전보장체제에 의하여 세계평화를 유지해왔고, 최근에는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가 창설되어 평화파괴범을 처단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제형사정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no sustainable peace without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인권의 문제는 그 보편적 가치를 천명한 세계인권선언(1948)을 효시로 그동안 끊임없는 노력에 힘입어 각종 조약과 집행기구들이 탄생했고 유엔인권이사회는 항상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의 중심체로서 자리잡고 있다.

셋째 개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 몇가지 변곡점을 거치면서 인류의 장래를 제시하고 있다.

개발문제에 관한 인식의 변화

개발(Development) 문제를 역사적으로 개관해보면, 유엔은 60년대까지 주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개발목표 달성을 많은 난관이 발생하자 마침내 유엔은 70년대에 들어와서는 기본적 필요(basic needs)의 충족을 개발 목표로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80년대와 90년대에는 아시아 및 남미 지역에서 금융위기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시장경제적 구조조정을 개발의 주요 목표로 삼게 되었다.

그러나 곧 세계화의 물결이 힙쓸면서 구조조정의 역효과 내지 부작용으로서 빈곤, 기아, 질병, 교육, 양성평등, 환경 오염 등 여러가지 난제가 등장하자 2000년 9월 유엔은 2015년까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라는 범세계적 약속을 채택하게 되었다.

한국의 성공사례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시대의 개발 연대를 거치면서 유일하게 개발 성장의 성공적 사례가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성장 목표달성을 위하여 절차윤리보다 능률 지상주의로 말미암아 개발과 인권, 개발과 환경, 개발과 노동 등 수많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갈등을 겪으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험이 있다.

개발과 환경문제

국제사회에서는 이 같은 경제성장 일변도의 개발 모델이 지구환경에 위협을 가하기 시작하자 1972년 로마 클럽의 제1차 보고서인 성장의 한계(Limit to Growth)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을 효시로 1980년 국제환경기구들이 공동으로 세계환경보전전략을 작성하여 생태계, 생명계의 유지, 생물종의 다양성 보전, 자원의 지속적 이용의 확보 등이 다각도로 거론되었다.